모든것이 잘못된 것은 다 나 때문이었다.

.

.

.

라는 인트로로 시작.

화면이 전환되고 바 괘종 시계가 보인다.

괘종시계가 1시에는 1번, 2시에는 2번 3시에는 3번 댕 소리를 내며 우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덧 시계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고 시계는 정확히  시침 분침 초침까지 12에서 멈추고 시계가 울리기 시작한다.

댕.

괘종시계가 한번 울렸을 때 화면이 전환되고

주인공이 목을 메고 자살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의 눈 앞에는 한 꼬마아이가 소름끼치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다.

주인공은 숨이 막혀 어지럽고 괴롭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다.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절대 나 자신의 의지로 자살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꼬마 아이가 내 몸을 빼앗고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 라는 비슷한 의미의 독백을 한다.

주인공은 목이 매달린 채로 힘겹게 감겨 오는 눈을 감지 않으려고 버틴다.

그리고 눈 앞의 꼬마 귀신을 붙잡기 위해 온 몸을 비틀며 손을 뻗고 있을 때 갑자기 몸이 쑥하고 빠져나오듯 허공에서 바닥으로 착지한다.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던 꼬마 귀신은 그저 소름끼치게 웃으며 주인공의 방에서 벽을 통과하며 밖으로 사라졌다.

(주인공은 주변을 두리번 거렸다.)

놀랍게도 댕 소리를 내던 괘종시계의 초침은 멈춰있었다.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자 커튼을 목에 칭칭 감은 채 괴로운 표정으로 공중에 매달려있는 주인공이 보였다.

시간이 멈춘 것 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유체이탈.

시간이 멈춘 지금 어둠 속에서 주인공 무엇을 어찌 해야하는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죽지 않으려면 주인공은 어둠속의 집 안에서 아이 귀신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트로

방 밖을 나선 주인공은 집을 둘러 본다. 어두 컴컴하지만 약간의 달빛 덕분에 주변 사물의 식별 정도만 가능한 정도이다.

주인공이 있던 방은 1층 제일 구석 방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몸이 매달려 있는 방을 냅두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뜩 바닥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핏자국은 복도 방을 따라서 2층 계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주인공은 일단 1층을 수색하고 2층에 올라가기로 결심한다.

1층 부엌부터 화장실 거실 등등 을 순찰하며 집에는 화장실 칫솔 3개 . 가족 사진. 난장판이 된 부엌 등등.(화장실 샤워 커튼 뒤로 실루엣. 부엌에서 느꺄지는 웃음소리. 갑자기 깨지는 접시 등 깜짝 놀라는 연출 필요)

순찰을 하고 결국 핏자국을 따라 2층으로 향한다.

2층에는 엄마 아빠 방, 창고, 주인공의 방 등등 다양한 방이 존재한다.

엄마 아빠방을 순찰하다가 주인공은 엄마방에서 소름끼치게 웃고있는 엄마 귀신 발견.

주인공은 정신 못차리고 도망치다가 2층 서재인 아버지방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발견.

아버지를 클릭하자 아버지가 뒤돌아서며 배 주변이 피투성이인 아버지의 시체와 마주친다.

당연이 다시 도망침.

(귀신들을 이용해서 스토리에 따른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 같음)

다시 도망치고 여러방을 돌다가 꼬마 귀신과 관련된 사진이라던가를 보며 단서를 수집. ( 그 외에 스토리와 관련된 단서도)

단서를 수집하다가 핏줄기가 이어지던 다락 창고 상자에서 열쇠 하나 얻음.

2층의 엄마방에서 부터 아버지 방까지 핏자국이 이어진것을 확인함.

핏줄기가 있는 서재 아버지방 창고를 열쇠를 이용해 열어보니 아버지 어머니 시체가 있음.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방에서 자신이 썼던 여러 노트와 일기장을 통하여 자신이 이중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됨. 꼬마 귀신과 유사한 어린이의 사진 등으로 그것이 자신의 어릴적 모습인 것을 알게 됨.

굵은 핏줄기는 자신이 시체를 질질 끌고 다녀서 생긴 자국들이고

 툭툭 떨어져 있는 피 자국은 자신의 몸에 묻은 피가 자신이 걸어다니는 곳마다 따라 떨어진 곳임을 알게 된다.

ㅡㅡㅡㅡㅡㅡㅡ

주인공은 정신병자여서 2층에서 엄마를 엄마방에서 죽이고 그것을 끌고 아버지 방까지 간 다음 서재에 있던 아버지도 죽이고 창고에 넣고 문을 잠금.

어렸을때부터 소중한것들을 보관하는 박스에다가 그 열쇠를 넣고 1층으로 내려와서 구석진 방에서 커튼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 그 때의 시간은 딱 12시 쯤.

ㅡㅡㅡㅡㅡㅡㅡㅡ

(아이 귀신과 여러번 갑툭튀하게 마주치기는 하게 하면 좋을듯함.)

결국 1층으로 내려온 주인공은 자신이 목을 매달던 방 앞까지 다시 옴.

문을 열고 목을 매달고 있는 자신을 봄.

그제서야 방안에는 달빛이 진하게 가득차고 바닥에 널부러진 부엌칼과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던 피투성이의 자신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을 봄.

그리고 아이 귀신은 매달려있는 자신의 양 팔을 잡고 손으로 목을 못풀게 하고 있다.

아이 귀신은 주인공에게 말릴거냐는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바라보지만

그러나 결국 주인공은 아이 귀신을 말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고 게임은 끝.

그리고 그제서야 시간은 흐르듯 댕 댕 괘종시계가 울린다.